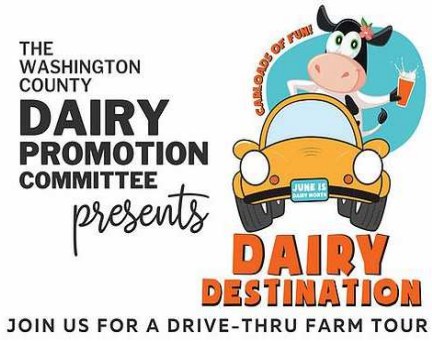
Global Dairy Report
글로벌 낙농뉴스
해외 정책동향 및 낙농뉴스

2021.6.2 | www.dairy.or.kr | 통계조사팀(044-330-2072)

[마케팅] 美, 드라이브 스루 목장투어 실시

– 차로 이동하며 목장투어 진행, 참가 기념품으로 유제품 꾸러미 제공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위스콘신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식 목장투어가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 위스콘신주 낙농가협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소비자들에게 낙농업에 대해 알려주고 유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오는 6월 12일 사상 첫 드라이브 스루 목장투어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투어를 통해 참가자들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젖소와 송아지 사육 공간과 착유실을 둘러보고 목장이 환경 보호를 위해 토양과 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추리게임을 실시해 경품을 지급하는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주최 측은 모든 차량에게 40달러(약 4만 5천원) 상당의 유제품 꾸러미도 전달될 계획이다. 〈 출처 : washingtoncountyinsider.com, 5월 29일 〉

[산업동향] 인도 낙농업계, 동물보호단체의 식물성 우유 생산 요청에 반박

– 아물(Amul) '1억 낙농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필수산업'...네티즌들도 '얼토당토않은 소리'

국제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 인도지부가 인도의 최대 유업체인 아물(Amul)에 식물성 우유 생산을 전환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업체가 이를 반박한데 이어 네티즌 사이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페타 인도지부는 아물 측에 보낸 서한을 통해 비건 식품과 식물성 우유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동물성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식물성 우유를 생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아물 측은 낙농업은 1억 낙농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필수산업으로 이를 중단할 경우 누가 이들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페타의 요구에 얼토당토않은 소리라며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페타가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국가에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적하며 식물성 우유를 포함한 비건 제품은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네티즌들은 아물 측에도 페타의 제안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계속해서 유제품 생산에 주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 출처 : food.ndtv.com, 5월 29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